朝鮮日報
本紙六面
發行兼編輯人 安在鴻 / 印刷人 金炯元 /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滿鐵의 新政策

二十日大連來電에 依하면 最近滿鐵重役會議에서는 今後의 新政策을 樹立하엿다는바 이제 그 內容이라하야 傳하는바를 들으면 根本精神을 人口食糧問題를 基調로하야 日本의 產業立國에 矛盾되지 안케 在滿日人의 經濟的活躍을 援助함에두고 日本商品의 賣却과 原料食糧品의 對日輸出等에 着手하기로하엿다 한다 그리고 그의 具體的方策으로는 日商에게 百萬圓의 商業助成金을 交付하고 輸入組合에 五百萬圓程度의 資金을 融通하는 同時에 奉天에 一大百貨店을 建設하고 齊齊哈爾及洮南에 貿易官을 派遣하기로하엿다고 한다

×

滿鐵은 누구나 아는바와 가티 日本滿蒙經營의 急先鋒으로 鐵道 鑛山 其他에 數億圓의 投資를하고잇고 奉天 長春等 南滿의 各重要地에 所謂『附屬地』라는 市街地經營까지 하고잇슬뿐아니라 各種學校까지 各地에 設하야 日本勢力의 中軸을 이루어서 잇다 特히 田中內閣에 依하야 東方會議가 召集되고 『滿蒙積極政策』이 樹立됨에 딸아 從來의 四頭制가 滿鐵中心制로 變更된 以後는 滿鐵은 名實共히 日本滿蒙經營의 大本營이 되어잇다 딸아서 今次重役會議에 依하야 決議된 新政策은 이들 日本政府의 對滿蒙新政策으로도 볼수잇는 同時에 딸아서 田中內閣의 新滿蒙積極策의 具體的表現으로도 볼수잇슬것이다

×

每年百萬式增加되는 人口의 處置를 爲하야 골머리를 알코잇는 日本으로는 滿蒙經營을 人口食糧問題와 그에 隨伴되는 產業立國의 精神을 基調로하야 新政策을 樹立함이 當然한 일일것이다 또 그러케함에는 關東都督 奉天總領事 又는 軍司令官보다는 名義上으로라도 滿鐵을 中心으로함이 가장 賢明한 政策인것이다 그러나 田中內閣에 依하야 『滿蒙積極策』이 樹立된 以後로 外로는 勞農露國은 勿論이오 資本主義列強의 그에 對한 注視도 甚하거니와 中國民衆의 그에 對한 反感은 激甚하야 南方各省은 勿論이오 東三省에서까지 激烈한 排日運動이 잇섯슴으로 보아 그의 具體的實施가 어느 程度까지나 可能하며 그의 影響이 어떠케될는지는 甚히 疑問이다

×

特히 最近莫斯科通信에 依하면 勞農政府에서는 오는 共產黨大會를 機會로하야 對極東一般政策을 審議하는同時에 中東鐵道에 關한 根本對策을 協議하기로 되엇다는바 從來의 隱忍自重主義가 몰이어 失敗를 招致하엿슴에 鑑하야 大體로 어느 程度까지의 積極的對策으로써 對하게 될리라하니 南에서 올라가는 日本의 積極政策과 北에서 내려오는 赤露의 積極策이 어느 程度까지 平穩을 維持할는지도 疑問이어니와 人口食糧問題本位의 日本積極策에 對하야 中國民衆의 態度가 어떠케 될는지는 興味잇는 問題일것이다 滿蒙의 今後! 그의 前途는 果然如何할것인가?

天險을 扼한 山西에 奉軍侵入은 不可能

全國의 革命勢力과 聯絡하야 最後까지 抗戰하고 말리

【天津에서 山西代表南桂馨氏談】

(北京二十日發) 天津日本租界에 隱伏한 山西代表南桂馨氏는 或者에게 左와 如히 말하얏더라

奉天軍의 말하는바와 가티 山西軍이 慘敗하얏다 할지라도 山西軍이 天險을 扼하야 固守한 以上에는 奉天軍의 山西侵入은 事實上 不可能하고 딸아서 山西와 奉天의 妥協은 全然不可能한것이오 山西는 國內에 벋친 革命勢力과 聯絡하야 어대 것 奉天軍과 戰鬪하고 말것이다

打通鐵道竣工 十一月에 開通

(北京廿一日發) 打通鐵道는 十月十五日에 竣工되어 中國側은 十一月부터 開通할터이라고 報하는바 芳澤公使는 不遠嚴重抗議를 行할터이라더라

長의 任命이 잇는 同時에 巡警의 募集을 開始하얏다 市中은 商店의 一部가 開店하고 居留日本人도 別被害는 업더라

山西進擊令發布

閻氏가 悔改하면 考慮

(北京二十日發) 張作霖氏는 十八日附로 大意가 左와 如한 大元帥令을 發表하엿다 더라

閻錫山이 兵을 起함으로 本大元帥는 不得已 兵을 進하야 各地를 回復한바 그로 말미암아 地方人民이 맛난 慘害는 痛心하기 견댈수업고 그 罪惡은 閻氏에게 잇다 此際에 閻錫山이 眞實로 허물을 뉘우친다면 本大元帥는 考慮할것이오 그래도 頑固하게 悔改함이 업다면 다시 軍隊를 進出시키어 討伐을 繼續하야 山西의 人民을 塗炭으로부터 救出할것이니 各軍은 山西에 들어가거든 軍規를 嚴肅하게 하야 人民에게 侵犯함이 업고 山西軍으로서 降服하거든 곳 容恕하는 措置에 나아갈것이다

右와 如한 命令은 山西進擊의 命令으로 看做할것이라더라

張家口― 警察廳長銃殺 山西內通으로

(張家口二十日發) 高維岳入城後 山西軍과 通한 警察廳長은 銃殺되고 巡警은 武裝의 解除를 當하얏는데 十九日에 이르러 新警察廳

奉派內心에는 妥協을 希望

閻氏도 仲裁를 企待中

(東京電) 奉派와 山西와의 妥協問題는 何等具體化되지 안허스나 楊宇霆氏는 相當히 考慮中이다 卽南路의 現狀은 直浪子關을 突破하야 一氣에 太原을 逼迫할 可能性이 업고 又北路도 大同까지는 進擊할 決心이 나 그 以上 進擊함은 多大한 犧牲을 要하고 山地線에 入함으로 當然히 持久戰이 되어 年內에 解決키 困難한 處地임으로 奉軍은 內心에 頻頻히 妥協을 希望하고 一方閻錫山도 亦第三者의 勸告를 기다리는 듯하더라

奉天과 山西와의 妥協도 實現되리라고 思한다 馮은 晉、奉協同의 敵으로 此以上 戰爭繼續은 無意味하다 萬若直接妥協提議가 困難하면 何成濬을 通하야 蔣介石으로부터 閻에게 警告시키어 和平한 後 提携하야 馮에게 當할 妥協이 成立될지도 未知이다

奉、晉妥協으로

(北京二十日發) ……代表……南方……山西……하야 左와 如히 語하되 南京政府……問題도 잇서서 北伐……는 實力이 업는것은 明白하다라

京綏線從業員 總罷業計劃

未然暴露數十名逮捕

(北京廿一日發) 山西軍便衣隊는 共產黨員과 聯絡하야 京綏線從業員의 總罷業을 計劃하엿스나 未然에 暴露되어 關係者數十名은 逮捕되엇더라

李濟琛氏非常手段 第三回쿠데타斷行

共產分子逮捕全市戒嚴 總罷業計劃을 未然에 防止한것

(香港二十一日發) 張發奎軍이 武漢으로부터 廣東에 歸한 以來 李濟琛氏에게 壓迫되어 잇던 共產派勞働團體는 盛히 暗中飛躍을 試하던바 드되어 十七日夜 罷工委員會 海員工會를 中心으로한 左傾勞働者代表百餘名은 二十四日을 期하야 總罷業을 開始하는 同時에 大示威運動을 이르키기로 되어 四月十五日 李氏에게 逮捕된 共產派勞働者의 無條件釋放을 要求할 事實若不成功될 時는 永久히 罷業을 繼續하기로 되엇다 그런데 李氏는 이 와 가튼 일이 잇기 前에 먼저 十九日 共產分子의 逮捕令을 發하고 午后二時 廣東全市에 亘하야 戒嚴令을 布하는 同時에 軍隊를 急派하야 罷工會 海員工會를 襲擊하야 領袖五十八名을 逮捕하얏다 右는 李氏의 共產派勞働團體에 對한 第三次 『쿠데타』로 이 外 左派工人의 再起는 當分困難하다 고 보이고 排日黨에 對한 影響도 多大하얏더라

李氏首席으로 臨時委員會成立

(廣東二十一日發) 廣東政府의 臨時委員會는 正式으로 成立된 旨를 發表하고 同大會의 宣言은 陸海軍及一切의 軍事機關을 管理하는 同時에 指揮權을 所持한 것임으로써 李濟琛의 總指揮의 名稱을 取消하는 旨의 命令을 發表하엿스며 또 同委員會首席은 李濟琛氏이더라

南京噸稅附加 徵收廢止

(東京電) 外務省着電에 依하면 廣東交涉員은 去十八日로써 南京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本年九月一日부터 噸稅附加稅의 徵收를 停止할 旨를 日本總領事及各國總領事에게 通知하엿다 또 九月一日 以降今日까지 徵收한 噸稅는 返戾케 될터이더라

東方諸國과 提携成功盛誇張

◇英國은 極口로 惡罵

【勞農露人民外交次長리氏演說】

(『레리그라드』十九日發) 勞農露西亞政府外交次長 『리도뷔노후』 氏는 十九日午前 『쓰치로푸』 兵器廠職工 一萬二千餘名이 會合한 席上에서 外交問題에 關하야 一場의 演說을 試한바 特히 最近의 佛露關係에 對하야 左와 如히 力說하엿더라

『쏠조아』 政府는 一般으로 勞農政府에 對하야 何等確定된 政策이 업시 千變萬化하야 恒常動搖가 굿치지 아허 勞農政府는 此對策에 窮한 模樣으로 現下의 佛蘭西政府에 對하야서도 特히 이러한 感이 深하다 何如間 現在와 如한 形便에 佛蘭西政府가 如何한 方針으로 勞農政府에 對할는지 此를 窺知키 不可能하다 딸아서 勞農政府로서는 此際에 되도록 國交의 圓滿을 期하고 一切의 破綻을 避할 方針을 講究하고 잇는 中이다 但 勞農政府는 이런 『쏠조아』 國家와 어대까지 對等의 條件으로 商議할 方針이오 決코 偏務的 形勢를 取치 안는다

伊首相 法王廳에 關한 聲明發表

(『나우엔』 二十日發) 오래 동안 發表를 기다리고 잇던 伊太利首相 『뭇소리니』 氏의 法王廳에 關한 聲明書는 今夜에 發表되엇더라

委員統治各地 施政狀態査定

(『제네바』 二十一日發) 國際聯盟常設委任統治委員會는 二十四日부터 開會하엿는데 日本委任統治의 南洋諸島를 爲始하야 米國諸委任統治其他 過去一年間에 在한 施政狀態를 査定할터이더라

獨八萬炭坑夫 總罷業斷行

燃料缺乏으로 大影響

(伯林十九日發) 獨逸 『잘』 流域의 炭坑地 『하―레』 地方의 褐炭坑夫 八萬人이 賃銀一割의 値上을 要求하고 十八日부터 同盟罷業을 開始하얏는데 坑主側은 多數한 自由坑夫를 募集하야 이것을 補充하고 잇는바 目下의 形便이 이러함으로 罷業者側이 騷動을 惹起할듯한 形勢는 업고 오즉 今番罷業한 結果 石炭의 產出이 停止되어 이미 各方面에 多大한 影響을 波及시키고 工場에는 閉鎖할것도 잇스며 其他燃料가 缺乏되어 業務를 短縮한것도 不小한 模樣이며 딸아서 英吉利에서는 昨年의 炭坑罷業으로 『스칸치나뷔』 方面의 勢力을 獨逸에게 빼앗긴 形便임으로 今番의 此機會를 利用하야 同方面의 市場을 奪回할는지 아지 못하겟슴으로 獨逸經濟界는 多小의 不安을 感하더라

山西에 入하는 馮態度의 兩面觀

奪取野心? 後退假道?

(北京二十日發) 馮玉祥의 山西進入에 對하야 各方面이 不一한 바 山西의 敗한 機會를 타서 馮玉祥은 山西를 奪取하라는 것이란것과 隴海線方面의 不利로 河南을 放棄하고 陝西에 退却하라는 國民軍이 山西南部의 道를 假함에 지나지 못하고 山西에 對한 野心은 업다는 것의 二樣觀察인데 山西軍參謀長 朱綬光이 國民軍의 援助를 懇請한 結果 國民軍의 山西進入이 開始되엇다는것으로 推察하면 山西의 運命은 奉天軍의 攻擊보다도 馮玉祥의 態度如何에 달리엇다는 注目이 더욱 크게 되엇더라

唐生智官職遞奪 討伐令同日宣布

江左指揮程潛 江右指揮李宗仁 南京軍事會議에서 決定

(上海二十一日發) 南京政府軍事委員會는 二十日臨時會議를 開한 結果 唐生智氏를 討伐하기로 決定하고 程潛氏를 長江左岸各軍總指揮에 李宗仁氏를 長江右岸各軍總指揮에 任命하는 同時에 唐生智氏의 官職을 遞奪하고 二十日附의 討伐令을 宣布하얏더라

李宗仁出動開始

(南京二十日發) 李宗仁氏는 十九日 戰艦에 赴하고 二十日午後四時 唐生智討代令이 發하엿슴으로 第六、七、二十六、三十七、四十四等各軍은 續續蕪湖方面으로 出動을 開始하엿는바 이 外에 今朝來當地와 長江上流와의 電信은 一切不通이 되엇더라

劉興軍大通에서 攻擊

(蕪湖二十日發) 蕪湖로부터 退却한 劉興軍은 長江右岸에 沿하야 逆航하고 程軍第十三軍은 大通의 側面으로부터 此를 攻擊中이며 劉軍部下第四師는 程潛軍에게 買收된듯하고 程軍은 蕪湖에 入하얏더라

日中商約延期 二十日附로 文書交換

(北京廿一日發) 十月廿日로 一期限三個月延長의 件은 廿日附로써 文書交換手續을 終了하엿더라

滿蒙二次交涉 來週中開始

(北京廿一日發) 滿蒙第二次交涉은 來週中에 再開하게 될터인바 其劈頭의 主題를 鐵道問題로 할 가 또는 第一次交涉의 懸案解決을 先決로 할것이나는 目下芳澤公使와 政府間에 打合中이더라

滿蒙交涉再開는 在中日商의 救濟急務

(北京二十一日發) 滿蒙交涉은 近近再開하려고 準備中인바 在中日本商人은 內亂으로 極히 疲弊하야 日本으로 撤歸할 資金까지도 업는 窮狀인데 이 救濟는 目前의 急務이다 그다음 米國上院議員 『씽그함』 氏가 『쿨릿치』 大統領과 中國各地의 實權者를 承認하야 모든 交涉을 함에 對하야 協議하엿다고 하나 이것이 事實이라고 하면 米國은 中國을 아직 當分現下와 如한 群雄割據의 狀態가 繼續하리라고 보아 各地의 實力者를 認定하야 實際的 効果를 收하려는 것이나 日本으로서도 크게 參考가 될터이다

알바니아內閣 總辭職을 決行

(羅馬二十一日發) 『알바니아』 『치라나』 로부터 온 情報에 依하면 『알바니아』 內閣은 總辭職을 하엿더라

『쿨릿치』 氏 大統領立候補 抛棄再聲明

(華盛頓二十日發) 米國大統領 『쿨릿치』 氏가 第三者大統領選擧

寧陵에 잇던 馮軍武裝解除

山東軍에게 包圍되어

(北京廿一日發) 隴海線馮軍主力은 蘭城、歸德線에 在한바 寧陵에 在한 馮軍은 山東軍第三과 廿四兩軍에게 包圍되어 廿日全部武裝解除를 當하엿는데 同方面의 直魯軍은 全部六軍約九萬이더라

隴海線修繕終了

(北京廿日發) 隴海線의 修繕이 終了되어 歸德以東의 軍用列車이 開通됨으로 直魯軍後援部隊는 開封을 目標삼고 軍進中이더라

對日經濟絕交 汕頭排日大會서 決議

(上海二十日發) 十九日汕頭來電에 依하면 今日當地에 排日大會가 開催되엇는바 七千名의 群衆이 雲集하야 排日演說等이 잇섯스나 何等의 不穩한 行動은 업시 散會하고 또 委員會에서 對日經濟絕交는 二十四日부터 開始하되 荷役에는 故障이 업게 하기로 決議하엿다더라

英佛對露

此間은 對英關係에 도 同一하고 將來英吉利와 再次國交를 締結하는 境遇에도 此對等商議를 支持할 생각이다

또 外交次長 『카라한』 氏도 他의 集會의 席上에서 外交演說을 하엿는데 그 對英對佛問題에 關하야 左와 如히 述하엿다

最近英吉利가 特히 佛蘭西에서 極히 陰險한 外交를 發揮하고 盛히 政府排斥運動을 惹한 顯著한 事實이 오더욱 英國의 排露運動은 單佛蘭西의 形便에만 굿치지 안코 前者勞農政府가 米國의 石油會社에 露國石油를 賣키 爲하야 有利한 條件을 提供하자 英國政府는 此를 阻止하려고 가진 陰險한 手段을 썻스나 右는 드되어 不成功에 마치엇고 目下右의 石油契約에 關하야 米露兩國間에 着着交涉이 進步되어 近近完全한 締定에 達할 模樣이며 其他東洋諸國에 對하야서도 一定不變의 政策을 支持한다 右는 非常한 勢를 發하야 이미 今日까지 幾多의 聯邦을 作하고 特히 土耳其 『아부카니스탄』 과 友誼關係를 매즌 것은 欣快하는바이다 就中 『아부카니스탄』 과의 關係는 가장 緊密한 政治的經濟的提携의 要素를 含한것이며 또 最近에는 波斯와의 完全한 保障條約을 締結한 것도 勞農政府의 外交上 一大成功이라고 아니할 수 업다 右에 對하야는 英國政府가 가장 陋劣한 外交手段으로써 이를 妨害하려고 試하야 이미 露波條約이 締結된 今日에도 아직 波斯의 議會方面에 外지 惡辣한 魔手를 伸長하야 兩者의 關係를 破綻에 引導하려고 試하는 것이다 云云

國勢調査 項目協議

(東京電) 中央統計委員會는 十九日午後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昭和五年度의 國勢調査에 關한 調査項目如何에 對하야 協議한 後 五時가 넘어 散會한바 決定은 左와 如하다더라

一、調査期日 昭和五年十月一日

二、調査事項

第一 個人에 關하야 左의 事項을 調査함

一、氏名 二、世帶의 地位 三、男女別 四、出生年月日 五、配偶關係 六、職業、業名、地位、從業場所 七、產業 八、失業 九、出生地 十、民籍別、國籍別

第二 世帶에 對하야 左의 項을 調査함

一、住居

二、世帶票는 各地帶에 對하야 一通을 가지고 所謂世帶票式을 하고 世帶主又는 世帶管理者를 申告義務者로 함

三、結果의 整理公表

調査의 結果는 全部此를 中央集査로 하고 申告書其他의 材料는 그대로 地方으로부터 進達시키고 統計局에서 整理한 後 結果表를 作成하기로 한바 結果發表豫定은 左와 如하더라

人口概數卽報 昭和五年十二月 / 人口確定報告 昭和六年六月 / 各府縣別結果報告 昭和六年부터 八年까지 / 全國結果報告 昭和八年中

諾威選擧結果 勞働黨大勝

(오슬로十九日發) 『노―루웨―』 에서 總選擧한 結果 勞働黨에게 大勝利는 歸하엿스며 딸아서 勞働黨內閣이 現保守黨內閣으로 變遷하리라고 觀測되고 現內閣은 明年一月議會를 最後로 總辭職을 決行할 듯하더라

에는 出馬치 안켓다고 한 발에 對하야 世上에서 種種으로 憶測을 하던 바 最近다시 如何한 事情이 잇더라도 大統領再選에는 立候補하지 안켓다고 聲明하얏더라

水田耕作方法 朝鮮人에게 傳習

日本農民移住不必要

【赤露極東農務全權마氏談】

(東京電) 極東農務全權 『마모노푸』 土地改良技師 『찰누스』 氏는 西伯利의 水田經營、後藤子等의 計劃인 極東水田日露合辦會社案에 對하야 左와 如히 語하더라

極東水田의 經營은 露西亞의 財政上 重要한 事業으로 極東政府도 이 米作 『트라스트』 로써 二萬町步의 經營을 하는데 擴張할 希望이 잇다 有望地는 二十五萬町步로 今後事業資金의 必要를 感한다 日露協會의 合併事業交涉은 具體化되지 아니 하엿스나 至極히 조흔 일이다 지금은 鮮露人이 耕作하엿스나 露人도 水田耕作을 배웟슴으로 日本農民의 移住는 必要치 안코 生產米는 目下國內消費만이다 將來增產後는 食糧問題에 苦痛을 맛는 日本에도 輸出하겟다

國境에 守備增員 今年부터

兵營生活을 短縮하야 國民負擔의 輕減을 圖謀中임으로 兵은 以前보다 以上더 精銳을 要한다는 施設로써 日本陸軍은 東電所報와 如히 今年度入營期以降에 部隊中堅의 充實을 圖하고 兵卒의 訓練을 一層有効케 하기 爲하야 全國에서 下士八百名 事業工卒六千名의 增員을 行하야서 二期入營의 缺陷을 補하기로 決하얏는데 朝鮮部隊에서도 同樣第十九第二十의 兩師團을 爲始하야 國境守備隊에게도 今年度以降 逐次로 增員하기로 되엇다 卽 下士는 二個聯隊十二名乃至十三名이오 又一個師團約五十餘名 工卒은 一個中隊八名으로 一個師團三百二十餘名、守備隊又各中隊每에 增員하는 數 …… 師團…… 約七百餘名을 增員하는 것이다 그런데 下士의 養成에 就하야는 될수 잇는데까지는 日本師團에서 編入하지 안코 朝鮮의 部隊에서 行하게 되리라더라

露國視察團着東

(東京電) 日露의 經濟的握手를 一層親密히할 目的으로 極東國民經濟會議長 『스타리코푸』 氏를 團長으로한 極東露西亞幹部視察團은 二十一日夜八時二十分東京에 入하엿는바 一行은 團長 『스타리코푸』 財政全權 『리데만』 農務長官 『마모노푸』 交通全權兼烏蘇長官 『스뮤사렌코푸』 等諸氏와 其他鐵道船舶 林業 採金 食糧 漁業等의 國營機關代表等으로 團長은 此際日露의 經濟的親密을 圖하겟다고 語하더라

駐日露使後任 駐英參事 『마』 氏

(東京電) 日本駐箚勞農大使 『도푸카레후스키』 氏는 廿一日午後四時外務省에 出淵次官을 訪問하고 駐佛大使의 轉任에 對하야 不遠歸國할 旨와 後任으로서 現英國大使館參事官 『마이누키』 氏가 代理大使로서 來任할 旨를 述한 後 卽時辭去하엿더라

朝鮮水產總會 十五日開催

十一月十五日부터 十七日外지 三日間 長谷川町公會堂에서 朝鮮水產會總會를 開催하고 總督府로부터는 池田殖產局長、松本水產課長이 臨席하야 左의 件을 附議할터이더라

一、昭和三年度豫算에 關한 件 一、昭和元年度決算報告及剩餘金處分에 關한 件 一、役員改選에 關한 件 一、發動機共進會開催에 關한 件

◇總督總監動靜

(東京電) 齋藤朝鮮總督은 來廿八日午前東京驛發歸任하기로 決하엿스며 湯淺總監은 豫算審議의 大體終了되물기다려 歸任할터인바 來年度公債增額要求도 잇슴으로 多少遲延될 模樣이더라

人事消息

▲島原氏(一銀支店長)廿二日歸任

八面鋒

○ 張作霖은 閻錫山과 妥協할 생각이 굴뚝가튼 貌樣. 自身의 立場을 생각하면. 그러치아늘수 업지

○ 그러치마는. 閻氏와 맛부터서 馮玉祥을 치겟다는 것은. 아마 든 잠꼬대 그러치못하엿지

○ 南京國民政府는. 唐生智討伐令을 宣布하얏다고. 事實이면 또 妥協이로군

○ 廣東의 李濟琛은. 第三쿠데타를 斷行하야. 共產分子를 大掃蕩한다고, 또 自相蹂躪이로군

○ 露西亞極東農務全權一行이. 日本에 視察왓다고. 흥덩이에 붓은 줄을 드리지아흘가. 仔細히 보지

常恒 는 標商楊垂이
主 을 上向生衛衆公
店商各 니오이 함 張
藥洋 는 하賣發 서에
注 를 標商 이 에 中品
意하시오……

洋品及衛生藥品
都賣商
柳韓洋行
京城私書函四四
電話光化門二〇二六番

●朝鮮劇場
十月十九日封切
今週中本社名푸로그람 (娛樂價値滿点의 優秀品)
注意 午後七時始映 어린이 十錢
●파나마운트社提供 아란도완氏監督作品
밤의 紐育 全八卷
金色의 寢床 復活의 主演名優 로시드 카라 룩쉬 氏孃 主演
●유社쥬엘大爆笑劇 에드와드 레몰氏監督作品
天下의 大評判 全八卷
臉眼鏡眼의 主演者 에드와드 호톤氏 新進뷔지니아리 코빈孃 돈스의 大事件 以來老役名優 리스하탄氏 라되오 探偵의 主演 女優마가렛트 킴비孃 『復活의 카쥬샤』 로 로레스 테르리 오孃 等名優大競演
●유社쉴뮤스타作品 아네스트 레몰氏監督作品 原作사라 사도릿스 女史
뒤노는 血潮 全六卷
本篇은 西部劇이 아니다 쉴뮤스타 特作品으로 悲壯한 忍從哀史로 種族差別問題를 諷刺한 一大人道詩!
◎特別豫告◎ ◎(次週封切)◎
토선 명화 먼동이틀 때 全九卷
極光 에 怒吼 全八卷
荒 鷲 全八卷
유社 폭스映畫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當十月二十二日(土曜)晝間부터 大公開
世界的大名作問題의 名篇 그여히 封切
……오십시오 不朽의 名作을 讚揚하시라!
▲米國F、B、O社超特作大映 前無後無冒險大活劇
馬의 愛功名 全八卷
世界的人氣快男兒 후렌드 토무슨氏主演 世界的名馬… 白銀 王 決死의 大活躍
▲米國 퍼스트、 내슈날社大傑作 名篇 現社會人士에게 가장適當한 名畵
社會劇 紳士 全九卷
豆星리챠드바셀메스氏大熱演
▲日本마키노 푸로덕순大力作 現代劇連續篇 (第三回)
五人學生男 全六卷
實寫 폭스週報 全一卷
市內 貫鐵洞 優美館 電光 三五九番

當十月二十日부터
萬人苦待의 朝鮮映畫公開 天下人士는 그여코 다시 한번보시라
靑春의 로맨스와 白衣人의 哀愁로 짜노은
◇朝鮮키네마 第二作品 鄉土哀話
아리랑 全八卷
主演 羅雲奎 申一仙 氏孃
◇朝鮮키네마第三回作品 오라! 아리랑을 드르시러! 아리랑을보시라!
現代劇 風雲兒 全八卷
主演 羅雲奎 金靜淑 助演 尹鳳春 實孃
風雲兒! 風雲兒! 다시 오지못할이 期會에 風雲兒가 上映합니다
◇大파라마운트社映畫 天下의 人氣男兒 테이몬드 그리피스 氏 主演
喜活劇 混線新婦 全七卷
新郞新婦男에 서 겸허이 러나는 야단야단어대로 보던지 規模잇는 喜劇
파社 封切 鄕社 映畵 封切
朝鮮劇場 電光 一三八一

最新流行歐米式中折帽
數十萬諸氏의 好評과 賞讚 大宣傳的 空前絕後有의 安價로 但一千個爲限하고 大投賣
『セーバ付』
C 三、三〇 / D 五、〇〇 / E 五、五〇 / F 九、〇〇 / 特 四、五〇
代金引換
好機는 不再來!! 爭鬪的注文
京城鍾路 東產商會

理髮機械
實用特選品
內容 理髮機械、 덧빗、 面刀 / 內容 理髮鋏(各一個) 毛拂、 會(各一個) / 八種 一組 金四圓五十錢 / 銅形角櫛、竹合、鬪合 / 兩手●片手ト附 提供する
東華理髮器會社總代理店
大正商會
京城鍾路二、七八

萬人注視中의 拷問警官告訴

警官告訴事件補充으로 告訴人召喚精密調査

이십일일은밤이들도록예비취조해 원교검사는신중히사건을취급한다

元橋檢事의態度愼重

경관고문사건에대하야 원교검사(元橋檢事)는지난이십일일에 또다시권오설(權五卨)이하다섯사람을 경성디방법원에불러다가 대자세하게증거보충심문(證據補充審問)을시작하야 던긔불이들어올때까지 아조정밀하게아조소상하게취됴를 계속한바이로써 원고의신문은 전부종료되엇슴으로피고소인측인삼륜경부(三輪警部)이하네명의 경관에대한취됴는명이십사일월요일부터개시되리라는데 원래검거의사무로말하면극비밀리에하여가는일임으로 이러타커러타보도할수업스나이사건이원래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에대한 범죄일뿐더러온세상의주목속에잇서 그경과여하는법의공정을뭇도록중대한것임으로 감독관(監督官)인검사정(檢事正)도김호주의로가지고서사건을진행시키는 중인바이케이사건에대하야장미검사정(長尾檢事正)은말에와가티말하더라

嚴正히取調하겟다

思想團體의抗議를밧고나서

◇京城地方法院 長尾檢事正談

『오늘아츰에도 사상단체(思想團體)의 대표몃분이 와서 항의문(抗議文)을데출하면서 엄정히 취됴하여 달라함으로 물론더말할것업시엄정히취조하야 흑백을 가리겟노라고대답하엿는데 원래이사건은 아직증거의수집(證據蒐集)도다 하지아니한 오늘부터벌서항의하는것은넘우일즉한것가트나엇잿든 가장엄정한조사를요망하는그뜻은잘바덧습니다』

海內外의聲援如雷、總督府에嚴重抗議

총독대리와경무、법무량당국력방

法務、警務遺憾表明

재일본조선로동총동맹(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 신간회동경지회(新幹會東京支會) 신간회경도지회(新幹會京都支會)에서는일에와가튼 항의문(抗議文)을 만들어가지고조선총독(朝鮮總督)과천리경무국장(淺利警務局長)과경성디방법원검사정(檢事正)에게 재일로총의 대표리동재(李東宰) 동경 신간지회 대표강소천(姜小泉) 신간경도지회대표곽종렬(郭鍾烈)씨등삼씨가이십이일오전열시경에총독부로총독대리송사(松寺)법무국장과경무국장과또재판소로검사정을방문하고항의문을수교하는동시에 법치자(法治者)가 법을파괴한것은 부당한일이라는것을 항의하얏든바 송사법무국장을 위시하야 권긔삼씨는말하되 고문사건은 비장히유감으로 생각하는터이나 엄중히취됴한후 법에의지하야 상당히처벌할터인바 고문이라는것은 종래도 잇섯스나 그에대하야는 자긔네도 비상히감독하야 이와가튼일이 업도록하엿든것인데 이사건은 가급뎍(可及的) 이것을긔회삼아 세상의의운(疑雲)을 일소하도록 하겟다고 명언하얏다더라

◇…압송되는간도공산당원 (이십이일경원철도차에서)

共產黨豫審判事 五井氏를告訴準備

고문당한피고는고소한이외다수

其他被告도續續告訴

이번에조선공산당사건이경찰에 게검거되어 취됴바들때에 고문(拷問)을 당하얏다하야 옥중에잇는피고중에위선권오설(權五卨)홍덕유(洪惠裕)전정관(全政琯)강달영(姜達永)리준태(李準泰)등의 다섯명이 시내종로경찰서삼륜(三輪)고등계주임과길야(吉野)경부와김(金)경부보외대삼(大森)형사를상대로고소를데긔한것은 만흔피고중에 그사람들만이 고문을 당한것이아니라 전부가고문을당하얏스나 아직까지 자세히들어난 증거가적어서 위선그들만먼저 데긔케한것이바 그후로도 증거를수집한것이 만흠으로 불원간다시고소를 또데긔하리라하며 예심판사오정(五井)씨도상대로고소를데긔코자변호인들은 준비중이라더라

古屋氏歷訪

學術講演禁止와

조선공산당사건 공판에 대하야사실됴사와 및동사건 피고에대한변론을 하고자 멀리일본으로부터온 고옥뎡웅(古屋貞雄)가등관일(加藤貫一)의량씨의입경을긔회로 시내수송동사십사번디로농운동사(勞農運動社)주최로 로농운동에대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리라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이십이일오전에 시내종로서에서는 역시금지를 하얏슴으로 동강연회의 연사의한사람인고옥뎡웅(古屋貞雄)씨는 이십이일오후에법무당국(法務當局)과 경무당국(警務當局)을방문하고 권긔강연회개최허가에대하야량해를엇고자다시여러가지로 활동하엿다더라

『五井氏行動은 空前絕後의怪變』

예심을긔피하고자결촉진코자

當者에게辯護士團이警告

금번조선공산당사건의 예심(豫審) 취됴를경성디방법원예심패에서 상석예심판사 인오정(五井)씨가이것을처리하든당시에 고문을한혐의가잇는데또이번에 간도(間島)에서검거하야호송중인만주공산당(滿洲共產黨)사건을 경성디방법원에서 처리하게되면 또한오정씨가 이것을마틀것이니 그것은 위태한일이라하야변호인들이반대한다함은작보와갓거니와이사건으로변호사측에서는횡뎐(橫田)고등법원장과진와(眞鍋)복심법원장과원(原)디방법원장에게 각각경고문(警告文)을보내리라하며 문뎨의당사자인 오정씨에게는 자결(自決)을촉진(促進) 시키리라는바이에대하야 변호사 리인(李仁)씨는말하되 범죄수사상(犯罪搜査上)검사(檢事)는 경찰관과합치(合致)되는뎜이 잇스나 검사도고문(拷問)은 하지아니하는데 더군다나예심판사가 고문을하얏다는것은 해거(駭擧)중에도이보다더한 해거가업습니다 이와가티 판사가피고를 고문하얏다는것은 조선에법원이 설시된이래 공전절후(空前絕後)의 괴변입니다하더라

辯護團拷問警告에

五井判事를調査

만일사실이잇스면엄정처리

法院長代로末廣氏言明

경성디방법원예심패(豫審掛)의 오정(五井)상석판사가조선공산당사건의피고들을 예심취됴할때에고문(拷問)을하얏다 하야 변호인들이 고소를또준비한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이십이일오전에고옥, 가등, 리인, 허헌, 김병로등의변호인오씨가 경성디방법원으로 원(原) 원장을방문하얏든바마츰원장이 자긔고향에서그의부친병이위중하다는급보를밧고 고향에가고업슴으로말광(末廣)씨는원장을대신하야오정판사를자세히 됴사하야보후 사실상그러한일이잇다면 철저엄중히처리하겟다 고대답하얏다더라

朝鮮青總의 拷問討議延期

조선청년총동맹(青年總同盟)에서이번공산당사건피고 고문사건에대하야 이십이일에모혀 대책을강구코자하얏든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십삼일오후 한시에동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연긔하얏다더라

末廣氏는 他事件만

그동안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형사부부장판사 말광청길(末廣淸吉)씨가 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형사합의부(刑事合議部) 부장판사로전근된데대하야 이번조선공산당의재판장이경질(更迭)될가하야변호인측과 기타일반의 의가 분분하얏슬때에 재판소당국에서는 말광씨가 전근된것은 다만디방법원 형사부의륙십여건이나 적톄(積滯)된 사무를처리키위함이라고성명하야오든터인바 오는월요일 즉이십사일부터는 데이호법뎡에서 격일하야 말광씨의 심리로민사사건(民事事件)공판과교대하야개뎡케되엇스며단독(單獨)사건은데칠호법뎡에서개정한다더라

朝鮮共產黨公判第十七日

權五卨事件不公開로 秘密裁判은續開

일부공개설로군중여전히쇄도

正午頃에暫時休廷

조선공산당사건공판데십칠일인이십이일은여전히예정한시간대로오전열시부터경성디방법원데삼호법뎡에서 의연히공개금지리에 개정되엇는데 권오설(權五卨)의 만세사건부분공개설은이날도공개되지아니하얏는바 가족과지구들의모힌 사람은역시전일과가티만헛섯스며정오경에일으러잠시 휴뎡을하엿다가 오후한시에다시 개정하얏더라

安基成外十四人

元氣旺盛着京

작일아츰경성역에와

間島共產二回護送

간도(間島)일본령사경찰에검거되어 데일회에 리수우(李秀雨)외열네명을 서대문형무소로 수송하고 또이어열네명의 범인을 이십이일에 수송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권긔 데이회호송자는안긔성(安基成)외열세사람으로간도에서청진(淸津)을거치어그곳에서청진서원(淸津署員)의호송으로광제환(光濟丸)으로원산(元山)을경유하야이십이일오전일곱시십분에도착하는 렬차로입경하얏는데차중에는청진경찰서장내(長內)순사부장이하여덜명의경관이 으리으리한 무장(武裝)을가추어객차(客車)한량(輛)의반부를대절(貸切)하다십히하야 그들이탄객차 반부에는 보통객은어른거리지 못하게무장경관이 차내에서 비상한경계를하얏섯는바호송되어오는열네명은모다 원긔왕성 하야보엿고그몸가지는 태도가모다 침착하얏섯는바 경성역에서 하차하는즉시『타시』로서대문형무소에수용되엇는데 그들을 호송하야오든모경관은말하되 물론범인들이 전부사상범(思想犯)으로유식계급이니까그러케도하겟지요마는그러케침착하고얌전한것은이때것보지못하얏습니다 그들의 범죄여

精金美玉가튼 大家書畵一室에

일천여년고대사를말한 【三韓一片土의 貴文獻】

긔보와가티 이십이일부터 오는 이십륙일까지 오일동안 시내 견지동 고동보통학교(前普成高等普通學校)에서 열리는서화협회(書畵協會)의 미술뎐람회는 작일오전 열시부터 열리엇는데 출품한점수는 서양화(西洋畫)가삼십삼점이요 동양화(東洋畵)가이십삼점이요 글씨가이십팔점이다 비록출품만 수효로는 그리만치못하나 모든작가가 심혈(心血)을기우린정수(精髓)만 뽑은동서양화만 모앗슴으로사람을 놀래이는것이만흐며 리한복(李漢福)씨의추금강(秋金剛)은 특히눈에 뜨이엇고 글시에는 오세창(吳世昌)씨가한강연안(漢江沿岸)에서발견된바일천여년전삼국(三國)시대의녯기와장에서나타난 글씨를모사(模寫)한 삼한일편토(三韓一片土)라는 데목을 부친 것은 미술계로만가치가잇슬뿐아니라 고대사(古代史)를연구하는데도 귀여운문헌(文獻)이라할만하겟스며더욱조선의일류명필의 예서(隸書)도잇서 더욱광휘를더하더라

家屋倒壞

이십일일밤의폭풍 이십일일 오후일곱시 사십분경에 시내창신동 일백륙십사번디 리발업김도원(金道源)의새로지은 목제이층이도괴하야 마즌편집의 담벼락일부를 파괴하얏스나 다행히인축(人畜)의 피해는 업섯다고

二十四日夜 姜宅鎭氏追悼

오는 이십사일은 조선사회운동선상(朝鮮社會運動線上)에서악전고투하든고강택진(姜宅鎭)씨의 일주긔(一週忌)가되는 날임으로경성각사회 단테에서는 련합으로 동씨의 추도회를개최코자지난 이십일일 오후네시에 시내견지동 (堅志洞) 시천교당에서 준비회를열고 준비위원구명을 선뎡하얏는데 일반동지는다수래참하기를바라며추도문은 준비위원 림시사무소로보내기를바란다는데 시일과장소는 일에와갓다더라

臨時事務所 서울堅志洞八〇
時日 二十四日午後七時
場所 天道教紀念館

元山에自働車墜落 元山府尹은即死

세사람이중상하야서 부윤은즉사한대사건

지난이십일일오후열한시십분경 에일본녹아도(鹿兒島)에서개최되는상수도회의(上水道會議)에 참석하기위하야 원산을출발하라던 목촌원산부윤(木村元山府尹)이동부렵 자동차로 운전수최의헌(崔義獻)(二九)으로하여금조종케 한후 당디를 떠나는렬차를타랴고 원산역(元山驛)을향하야 달리다가 마츰적뎐교(赤田橋)를건너갈때에 방금공사중인 운하(運河)에 전긔목촌부윤이 합승한자동차가 떨어져서 목촌부윤은 즉사하엿스며 동승하엿던 원산부 주길서무주임(住吉庶務主任) 서강재무주임(西岡財務主任)은모다중상되엇더라(원산지국뎐화)

激烈한檄文配布

신민부의조선내디에대한계획

警察은印刷所를警戒

북만주(北滿洲)에 잇는 신민부(新民府)와정의부(正義府)는얼마전부터 량단테가합동하야 신민부라는명의알에에 활약을 개시하엿다함은 누보한바 최근에 조선내디운동의 첫계단으로 모종의정치운동(政治運動)을일으키고저위선 『국내동포에게고하노라!』 하는격문외에여러가지 격렬한문서를 조선내디에 널리배포하는 형적이잇다하야 방금 경찰당국에서는 사방의 국경을 엄중단속하는 한편으로 인쇄소(印刷所)는물론기타요소의경계를엄중이하고잇는중이라더라

麻浦金翰氏의 家宅突然搜索

여러가지과격문서압수

爆發事件關聯?

지난이십일일아츰에룡산서고등계형사대는돌연이 시외마포(麻浦)이백이십사번디 김한(金翰)씨집에두차례나출동하야엄중한 가택수색을하는동시에몃가지의문서(文書)까지압수하여갓다는 바사건은비밀에부침으로알수업스나탐문한바에의하면지난십이일에 공덕리주재소부근에서 폭탄과유사한 엇던물건이 폭발된일에 관계되지나안는가 함이라는데 전긔김한씨로말하면 이전에 박렬사건(朴烈事件)에 관계되어 오래동안 텰창에서신음하다가출옥한터 이라더라

含寃放火한日女

십구일밤 열시경에 시내앵정뎡(櫻井町)일뎡목팔십오번디김윤송(金允松)(三九)의 집부근으로부터 불이나서 즉시진화는하엿스나 원인이 하도모호함으로됴사한결과 그동리에사는 간호부암제(岩瀨)라는쉬흔일곱살먹은 로파가 이웃에사는일본인과사이가 조치못한것을 항원하고서 이가티 일부러방화한것임이판명되엇슴으로방금본뎡서에인치되어취됴중이라더라

橋下의怪屍

이십일일 오전아홉시경에 시외고양군아현리 경긔도 사범학교(高陽郡阿峴里京畿道師範學校)압헤잇는 다리알에 년령이오십세쯤되어보히는 남자한명의 시테하나가 멍석에 둘둘말린채버려잇슴을부근사람이 발견 하고소관서대문서에 계출해 왓슴으로 이십이일 오전에룡구(瀧口)서대문서사법계주임은도위생과(道衛生課)의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야 검시한결과노인혈로 사망한것만판명되엇스나 그시톄를 버린사람이 누구인 것은알수업슴으로 목하 엄중탐색을하는중이라더라

『朝鮮農總集會는 二人以上도不許』

종로서에서농총위원장에게언명

勞働農民黨에感謝狀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에서는 지난이십일일오후다섯시에 동회관에서 재경중앙집행위원회(在京中央執行委員會)를열고 고문(拷問)사건과 기타중요사항을 토의코자하엿든바 시내종로서에서는 고문사건을 토의한다면 집회를 금지하겟다함으로 부득이 고문사건의토의를 삭제하고 다음과가튼 사항을토의결정하엿든바이십이일오전에 동서로부터 돌연히 농총위원장인인동철(印東哲)씨를호출하야 작일의집회는시인하나결의문전부를 발표금지하는동시에금후의일체집회를금지한다하면서만일이인이상만집회하면단호한처분을하겟다하엿는데이에대한리유는금번공판중에잇는공산당사건을관계한다는것이라는바 동총동맹에서는 방금 그의대책을강구중이라더라

◇議案

一、臨時執行機關設置에關한件
一、會館移轉에關한件
一、關西運動者大會에代表派遣에關한件
一、梅花島小作爭議調查에關한件
一、素砂小作組合創立大會에代表派遣에關한件
一、共產黨事件辯護士에關한件
一、日本勞働農民黨에感謝狀發送에關한件
一、其他

女青講座禁止

경찰의금지로

시내중앙녀자청년동맹(中央女子青年同盟)에서 이십삼일부터 추긔강좌(秋期講座)를개최할예정이엇스나경찰당국의금지로부득이중지하엿다더라

天一靈神丸

가슴의 行樂은 健康에 잇는것입니다! 健康하라면 이一 天一靈神丸 이아니면 어들수 업습니다

諸般癨亂 消化不良 腹痛口瀉 에神効

定價 百二十九 … 二十九錢 … 十九錢

天一藥房 京城府

地方은代金引換

營業擴張特別廉價提供

定價 黑축수단화 金七圓五十錢 / 茶色 … / 各기도단화 … / 學生運動靴 …

永順洋靴店 本店京城 主 宋永

◎釀造業家에 一人力製粉機械

◎染料業家의 人力染料機械

營業科目 精米機 製油機 製粉機 …

朝鮮鐵工場 京城府林町

自宅에서되는 筆生募集 三友社本店

색실 수실 재봉실 푼사실 체단실

製造總發賣 首陽店 京城

平山富豪家에 拳銃青年二名突現

현금이십오원을쌔아서가지고 평양방면으로종적을감추엇다

各署聯絡大活動

지난십구일 오전령시반경에 황해도평산군세곡면진보리(黃海道平山郡細谷面眞寶里) 남궁덕(南宮德)(三二)의집에 권총을 가진 괴상한청년두명이 침입하야 권총을 발사하며 주인을협박하고 돈을강청하다가 마츰뜻을일우지못하고 궤안에잇는 현금이십오원을 쌔아서간사실이잇서 소관경찰서에서는방금각도경찰서로 수배를하고 엄중한수색을 하는중이라는바 이괴상한 권총청년이 평양에 잠입한형적이잇는듯하다는 모처의 정보를밧은 평양서에서는 부내각려관을 위시하야 엄중한 수색을하는중이라더라(평양)

도제출치아니한 사람도잇고 또는가사용(家事用)을 영업용(營業用)으로하고도 아즉껏지가사용의료금을 내고잇는등 보통료금이커렴함으로이동하고도그것을계출치아니한경향이잇슴으로 이상과가튼 행위에 대하야는 경성부수도급 수조례(京城府水道給水條例)제 오십오조 오십륙조에의하야급수를 정지하고 그손해를 배상시키는 외에 더욱십원이하의과료(科料)에처할것임으로금후로는주의하야주기를바라며 더욱이를 준수치안는때에는덕극뎍으로법측에의하야처분하리라더라

『民族的으로 差別을하지말라』

중국사범학교에서 【盟休한朝鮮學生要求】

간도국자가(間島局子街)에잇는 사범학교조선인학생 맹휴생들은 길림교육청과 연길도윤공서의 권고로일제히 등교하엿스나 동교한당일로 학교당국에대하야알에와가튼세가지요구가잇섯는데 만일요구를 실행하여주지안흐면 또다시 문제를일으키리라더라

◇要求條件

一、섭교무주임(葉敎務主任)으로하여금 정식으로 학생측에 대하야사과할것

二、이사건 으로인하야 학생들을처분치말것

三、금후로 학교당국 에서조선인학생에게대하야 민족뎍차별과모욕을하지말것(간도)

衡平委員會

이십오일밤에

【경성】시내운이동(雲泥洞)이십삼번디에잇는조선형평사총본부(朝鮮衡平社總本部)에서오는이십오일저녁에동회관에서상무집행위원회(常務執行委員會)를개최한다는바중요한의데(議題)는

一、全北錦山事件에對하야

二、江原道寧越事件에對하야

◇개막된서화전람회 (이면긔사참조)

白衣少年創立

지난이십일에

시내백의소년회(白衣少年會)는 그간창립준비에 분망중 이든바 지난이십일오후팔시에시내병목뎡일번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량재응(梁在應)씨사회하에 규약통과(規約通過)와위원선거가잇슨후무사히 폐회하엿다는바 강령(綱領)과위원은다음과가트며회관은동번디에두기로하엿다더라

一、나보다 아는것이적고나보다 가진것이적은사람을친절이하고사랑합시다

一、속히하고과로워하는사람을 먼저차즙시다

委員長 梁在應 委員 鄭泰平 徐鶴山 鄭漢燮 金聖泰 沈顯玉

少年斥候總務

윤치호씨피임

소년척후단조선총련맹(少年斥候團朝鮮總聯盟)에서는 이십일 에림시총회를중앙청년회관에서열고 총재를 선거하얏는데 총재(總裁)로는윤치호(尹致昊)씨가피임되엇다더라

위안활동사진(活動寫眞)과음악대회(音樂大會)를개최한다는바 일반규쓰독자에게는무료(無料)로입장을시킨다더라

水道無届異動 百六件發見

경성수도과묘사

최근시내에는 수도(水道)를 부정사용하는사람이잇다하야경성부수도과(京城府水道課)에서는 그제이구(第二區)인본정(本町)일뎡목으로부터 오뎡목에일으기까지와 또는 수표뎡(水標町) 장교뎡(長橋町) 립뎡(林町) 립뎡(笠井町) 명치뎡(明治町)일이뎡목 영락뎡(永樂町)등일곱정에대하야 구월중의 사설공동의 수도상황(私設共同水道狀況)을 묘사한바무계이동발견건수(無屆異動發見件數)가 백여섯건에나 달하엿는데 그중에는 사유자의 명의를변경하고

六十圓돈으로 曲馬團에팔린男妹

단장의학대에못니이어서 구혈을버서나로두에방황

◇方今警察이保護中

지난이십일 오후다섯시반경은 인천부외리(仁川府外里)에서 배우의 화장을차린 팔구세가량된 계집아이가 갈바를아지못하고 방황하는것을 시내화평리(花平里)에사는 권모(權某)가보고 그사유를 물은바 그계집아이는 요사이 시내빈뎡(濱町)십칠번디에서흥행하든장광곡마단(長光曲馬團)의한역자(役者)인당년아홉살된진란만한 어린이로서 그단장의매가무서워 가만히몸을빼치어 나왓다하면서 혹시 그단장에게붓잡히지나아니할가하는 공포심이생겨 얼골에겁내는빗을씌우고 할발이말도하지못하얏는데 누구나 어린자녀를 길으는 사람으로서 그광경을 볼때에 그대로방임할사람은 업슬것이다 주인몰래가만히 빼처나온것이 악마구혈을 버서나서 자유의 길로향한것이 엇든지다 행히인천 경찰서의보호를밧게되엇스며 뚤아서 곡마단장도 취됴를밧게되엇는데 이겨더욱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변청임은 본래경남 사천(泗川)군사천변(泗川面) 수석리(水石里)에사는변팔세(卞末世)의 딸로서 지금으로부터 약팔개월

◇사진은 우수에걸린어린남매

이번디에 원적을둔장광광남(長光光男)(三)에게 팔리엇다 그아비되는 변팔세는 준준무식한남의집 사리로 생활이 곤난할뿐 아니라일본 사람에게 팔려보내면 장래의 영달이된다는 중간소개자의 감언리설에 솔직하게도빠저 그장남인당년십이세된 변청수(卞性守)와장녀청임 두남매를 륙십원에다가 매도하기로되엇섯는데 소위매매계약 이라는것을보면 륙십원중이십원은 선금으로 지불하고남어지사십원은 본년음십일월말일에 지불하기로 되엇스며 또장래에까지 창기(娼妓)나 작부(酌婦)나 또는배우가튼것은 맨들시안코 잘공부를 시킨다는계약을에에서 권긔장광은 이십원에지나지못한 금액으로 남의집귀중한 남매두아이를 사가지고각디로 몰아다니면서 흥행하는일변으로 우마가튼 가자한매와가진구타를 하여가면서 곡마에대한 모든재조를 가르치느라고 인도상에참아 하지못할일을 만히하엿다 그리노라니 말도잘통하지못하는 그어린남매는 그단장의 구타하는것이무서워서 잘못하는 기예를여러로잘하려다가 무참히도 공중에서 떨어진적이 비일비재하다청임이는중국대련(大連)서흥행할때에떨어저서원쌔홍부(胸部)에위골(違骨)이되어아직도완치되지못하고 청수는요사이 인천에와서 흥행하다가 또한떨어저량미간(兩眉間)에중상을내여엇슴에도 악마괴수인 장광은잘치료도시겨주지안코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한첨이잇섯든지 지난이십일오후한시경에 북채를 들고청임을 구타하다가 필경경찰서에까지 알게되어 그와가티취조를당하는중인데 박사법주임(朴司法主任)의말을 들으면 청수의남매는 진주(晉州)경찰서로 동지한후 곳그의고향인 사천으로호송 하겟다하며장광이란자는 아즉취조 중임으로당분검속을 시켯다하며 성수남매의사천까지갈려비로장광에게십원을부담케하엿다고하더라

死刑言渡에도 泰然自若!

지난이십일평양에서 『參政府中隊長』文昌淑

두보 중국산동생림강현(山東省臨江縣)에본부를둔참정부(參政府)중대장(中隊長)인문창숙(文昌淑)(三一)은젼사머십칠명을 다리고 평북강계등디로 건너와서 군자금칠천여원을 모집하는 일방당시에 밀정(密偵)으로잇든 홍종흡(洪宗洽)이라는자를자긔부하에게 명하야 사살케하여일시세상의 이목을소동케한 사건으로 신의주디방법원에서 사형을밧고 평양복심법원에 공소중이든바 지난이십일오전에 재등(齋藤)재판장으로부터역시사형언도를하엿는데 권긔 문창숙은 태연자약한빗으로법정을 서서히물러갓다더라(평양)

主人업는집에가서 不法家宅搜索

그리고소문날가갑아서겁내여 失態頻發하는地方警察

지난구일 뎡평군귀림주재소(定平郡歸林駐在所)에서는 귀림면송문리 한래승모김씨(松門里韓來承母金氏)(四)를 절도혐의자로 인치하고 삼일간취조를하엿스나 아모단서도 엇지못함으로 방석하엿다는데 이제그 자세한 내용을듯건대 귀림면송문리 한동상의처 김순화(韓東相妻金順化)가 의복몃가지를일코귀림주재소에도난계를제출하엿든바팔일에 소원이출동하야 동리일백이십오번디 한우섭의처조씨(韓禹燮妻趙氏)로하여금 립회를강요하고 김씨집장근문의 몰쏙이를빼고들어가 수색을하엿스나 아모단서도 엇지못하고 익일에 김씨를 주재소에 출두하라는명령을 남기고돌아갓든바 김씨가익일에 주재소에 출두치안흠으로 순사가차저와서 출두명령에 복종치안음을 대책하고 주재소에 인치한후절도혐의자로 구금하고 오십로파에게모진매를가하며 취조하엿스나 역시 아모단서도엇지못하고 조씨와 싸호지말라고 설유한후십이일에 방석하엿다는데 불목하게도 가택수색을당한 김씨의집영편을알어보려고 동리한문상(韓文相)은 딸일석양에 차저가서 사실의 진부를듯고 이불법함을 신문지상에 발표할것을 말하엿던바 의외에 동주재소에서는그청년을 십이일에 검거하여일밤절도혐의자로 취조하며 일방동사건을 신문지상에 발표하려고한 흔 불온하다는것을말하고 십사일에방석하엿다더라(신상)

技競動運

專門蹴球聯盟 準備委員會

廿五日夜에開催

專門學校蹴球聯盟에서는本社後援의第二回專門學校蹴球聯盟大會를압두고來廿五日(火)午後七時半부터市內堅志洞本社樓上에서大會準備委員會를開催한다는바通知書를바든이는無漏出席하기를바란다

中等庭球聯盟

培材對養正戰

日沒로勝負는未決

六中等校庭球聯盟主催秋季리그의培材對養正戰은廿日午後四時三十分普成코트에서尹鍾應氏審判으로第五回戰에이르러四對二로培材가優勢이엇스나日沒로中止하니때는五時五十分이엇다

養正對普成戰

白熱의接戰養正勝

六中等校庭球聯盟第二日인養正對普成戰은二十一日午後四時부터培材코트에서安達鐵審判下에開催된바드되어養正에게勝利는오고아마럿더라

平壤對京城의 西洋人校野球戰

平壤에잇는西洋人學校와在京西洋人學校와의對抗野球戰은二十日午後三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우리볼』氏審判下에開催된바十七對三으로第一回戰은平壤西洋人學校팀이勝利하엿더라

十七對五로 在京西洋校雪恥

平壤西洋人校對在京西洋人校第二回野球戰은廿二日午前十時四十五分에培材球場에서『우리볼』氏審判으로開催한바十七對五로在京西洋人校가前日의慘敗를雪恥하엿스며니어서午後三時부터庭球對抗戰을行한後同日午後七時發列車로北行하엿더라

明治神宮競技 朝鮮代表派遣

今年度第四回明治神宮體育大會에는朝鮮에서青年團으로陸上競技에參加할目的으로豫選終了後입의發表한바와가티申込手續을하엿스나同大會의青年團으로出場할團體는聯合青年團의加盟團體가아니면參加不能規定이라함으로朝鮮體育協會에서는各方面으로盡力周旋申請의手續을하여보앗스나今年度는遺憾이나마參加不能케되엇스며明年度에는熱心히準備하야大擧參加할터이라고말하며以上의事情으로因하야今年의代表選手는일에와가티決定하엿더라

陸上競技一般男子 青木淸信(鐵道) 原口眞至(總督府) 喜田勳(鐵道)

同女子 山本나미 (京城第一高女) 朝鮮新聞推薦

軟式庭球複式男子 (安鍾達•孫眞星) (京城)

同女子 (須須木靜惠• 古田君子) (須須木定子•石塚豊子) (京城日報推薦)

卓球男子 井田近太郞 丸山清雄(京城)

運動界動靜

平壤西洋人學校野球選手及應援團一行廿一日午後에本社를來訪

今日의運動

▲實業野球聯盟第二日—正午鐵道對殖銀 △午後三時遞信對京電戰(京城球場에서)

가나다會 童謠歌劇

무산아동야학 유지비엇고저

시내 화동(市內花洞)에잇는『가나다회』후원회에서는 금번에경청방송국과『어린이사』등세단톄의후원하에 가나다회야학생 경비유지 동요가극대회(夜學生經費維持童謠歌劇大會)를오는삼십일밤 오후일곱시반부터 부내경운동 텬도교긔념관(紀念館)에서 개최키로 되엇다는데 특히이번동요 가극대회는『가나다회』에서 수년전부터 그회의 사업으로 경영하야나려오든 무산아동의 야학반의금년겨울유지경비가 곤난하야 그것을엇고저 가나다회의 귀여운소녀회원 륙십여명이 총출연을하야 최선의힘을다하야 아름다운여러가지 동요와가극을 상연할것임으로 종래의 가극대회보다는 매우볼만하리라는바 일반사회의동정도 만히바란다하며 입장료는 백권(白券)일원청권(青券)오십전 홍권(紅券)삼십전이라더라

洋靴盜失 百五十足

사우양화점에서

지난십구일오전한시로부터새벽다섯시까지동안에종로사우양화뎜(四友洋靴店)에는엇더한괴한이침입하야동양화뎜에지어노흔여원어치슈를훔처가지고집차로실구쓰백오십여켜레가격일천딸백여원어치를훔처가지고 어간근래희유한구쓰도적이잇섯는바이로인하야소관종로서들위시하야시내각서에서는범인테포에대활동중이라더라

尙州署에잡히인 四人組의竊盜團

장날잡히여엄중한취조 嶺南十六都市橫行

경북상주(尙州)경찰서에서는지난십칠일에사인조(四人組)절도단리만암(李萬岩)(三三)외세명을 잡아 방금당디경찰서에서 엄중한취됴를하는가운데에잇다는데이제그들의 범죄사실을 들으면권그리만암의원적은경북청주(星州)에 두고김개이 (金介伊)(二六)와김동수 (金東洙)(二六)박청옥(朴成玉)(二六)등사명은금년삼월경부터일단이 되어 령남일대즉경주 울산 영천 안동 례천 충주 괴산 청주 조치원 텬안부강 공주 보은등각디로돌아다니며스리와절도로전업을하다가지난십칠일에는 상주에도착 하야또한복잡한장날을긔회로하야스리와절도를 하라다가 윤형사에게발각테포되는동시에 권긔단원세명도곳잡힌것이라는데각디의피해금액은 그들의자백에 의하면락팔백원가량이나된다더라

의집에류숙하는중도(中島)(三九)라는일인은금년칠월에부산(釜山)에가서 대마(對馬)에거주하는 산근청(山根淸)이란 사람에게친구의명의로속이여면보위대 오십원을 사긔하여먹은일을비롯하야 구주박다(九州博多)와하관(下關)등디에잇는친구의친구를 권긔와가튼 수단으로속이어 현금삼사백원을 사긔하여먹은일이발각되어방금소관본정서에잡히어취조중인데 여죄도만흘모양이라더라

食刀强盜

평양에서발생 犯人尙未逮捕

지난이십일일오전 두시반 쯤에 평양부향뎡(平壤府港町)이십팔번디 김정호(金定鎬)의집에 식도(食刀)를가진 강도 두명이침입하야한명은 권긔주인 김정호가자는방으로 뛰어들어와서 식도로주인을 협박하고집안에 잇는물건을권부뒤지는때에엽방에잇든사람이 문을차고 고함을치며거리로뛰어나가는바람에권긔두명의강도는 대경하야 즉시어대로인지 종적을감추어 바렷는바이급보를접한평양서에서는비상소집을하여가지고현장과부근일대를 엄중히수색하엿스나 아즉범인의종적은묘연타고(평양)

妓生집지으다 치여죽어

평북방천읍남부동 (平北博川邑南部洞)에사는 오소홍(吳小紅)이라는예기(藝妓)는이번집을새로짓고벽을뭄이든중지난십칠일일군아츰에 갑작이들보가 붙어저 그곳에서일하고잇든 배경호(裵京浩)(三三)엄용천(嚴用善)두사람이치여배경호는중상을당하고 드듸어그이튼날죽엇스며 엄용천만은 다행히경상을 입엇승으로무사하얏다더라(박천)

木町山田運送店에 화물자동차운뎐수로잇는 소뎐안희(小田安喜)(三六)는 지난구일삼십일에화물을 가지고 경성을떠나 춘천(春川)으로 오는도중 가평、加平에서일본인석본(石本)이란양복장사가행리(行李)두개에다가양복(긔성품)을너허 묵근것을 춘천까지갓다 달라고부탁하고차에 실리엇던바 운뎐수소뎐은 중도에서 그고리작을몰으로외투한개와 양복한벌(시가약오십오원)을 감쪽가티훔쳐한사실이 양복임자이석본의 고발로발각되어 소뎐은 목하춘천경찰서에인치되어 엄중한 취됴를밧고잇는중이라는데 불원간 검사국으로송치될모양이라더라(춘천)

托送洋服窃取

운송점운전수가

경성부 본뎡내뎐운송뎜(京城府

朝鮮勞組紀念日

이십삼일에직공위안

이십삼일은 동경조선로동조합(東京朝鮮勞働組合)의 창립긔념『데ー』임으로 동조합에서는 당일밤에 동경에잇는 우리조선로동자들을 위하야 로동자위안회(勞働者慰安會)를개최하고저방금적극뎍으로준비중이든동시에그가튼소식을널리로동조합들과밋기타에게알리고자선전비라를배포하엿다더라

電報詐欺犯

본정서에서톄포

시내황금뎡(黃金町)사뎡목륙번디음식뎜안교현(飮食店安敎賢)

◇今日小說休載

감기신열에 實効散

萬病의基元이되는感氣입니다 그리고生命에까지가는感氣입니다

東京市神田區 師岡天然堂

男女 生殖器 푸레사ー

男子專用愛具

女子專用愛具

東京赤坂 東興堂

白金代用指輪 寶玉入

獨逸선물 特長

東京市外 大洋商會

梅毒?

淋疾?

京城府 濟衆院

滋養大王 山羊乳 友榮商會

京城 各種書籍雜誌 文房諸具 古本高價買受 東光堂書店

健康不老 延齡固本丹

滋腎潤肺補血強精 六味丸

朝鮮賣藥株式會社

京城 朝鮮賣藥株式會社